

국소진행된 두경부종양에서의 병합 항암방사선치료 (Concurrent Chemo Radiotherapy)의 임상적 유용성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¹⁾
치료방사선학교실,²⁾ 혈액종양내과학교실³⁾

백정환^{1)*} · 손영익¹⁾ · 정유석¹⁾ · 노형일¹⁾ · 안용찬²⁾ · 임도훈²⁾ · 박근철³⁾ · 김원석³⁾

배경 및 목적 : 국소진행된 두경부종양의 치료 방법으로서 병합 항암방사선치료의 치료적 의미에 대해 점차 임상적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. 몇몇 보고에서는 방사선 단독치료나 순차적 화학요법-방사선치료에 비하여 병합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, 우월한 국소완치를 보였다 는 주장도 있다. 저자들은 국소진행된, 수술이 어려운 두경 부암에서 병합 항암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, 생존률, 그리고 전신독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방 법 : 1996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과거에 치료 받은 병력이 없는,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두경부종양 환자 중 병합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 44명(남자 30명, 여자 14명)을 대상으로 하였다. 연령분포는 18~75세(평균 52세)였다.

결 과 : 병리조직소견은 편평세포암이 28례, 미분화암에

15례, adenosquamous cell carcinoma가 1례였다. 부위는 비인두 31례, 구인두 6례, 하인두 7례였다. 전례의 환자가 3,4병기의 진행암이었다. 완전관해는 26례(58%)에서 가능 하였다. 본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2년, 3년 생존률은 각각 80.4%, 75.3%였다. 완전관해군과 불완전관해군을 비교하 였을 때의 생존곡선은 완전관해군에서 유의하게 우월한 양 상을 보였다($p>0.05$). 전신독성은 빈혈, 중성구감소증, 혈 소판감소증 등의 혈액학적 독성이나 그외의 점막염, 오심/ 구토, 설사 등의 독성이 일부례에서 관찰되었고, 이러한 독 성의 극복이 치료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사료 되었다.

고 찰 : 상기 결과는 진행된 두경부종양에서 병합 항암방 사선치료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, 시도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. .